



어 린 이 도 서 관 꿈 틀

#서울 동대문구 #인건비, 자산취득비 지원

꿈이 자라는 틀

어린이도서관 꿈틀은 2002년, 지역의 폐 파출소를 공간 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와 동대문구 지역주민들이 설립하였습니다. 뜻있는 지역주민들의 후원금과 재능봉사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뜻을 모아 설립에 참여해주신 동대문 지역주민 중 한 분께서 ‘꿈이 자라는 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지역 사회의 소통 창구

어린이도서관 꿈틀은 지역 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소모임 활동이 활성화되는 곳입니다. 작은도서관으로의 역할을 뛰어넘어 마을 공동체의 소통의 공간이자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도 편하게 찾는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가진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지역의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사랑받으며 지역 사회의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어린이도서관 꿈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 긴급지원119를 통해 구입한 북트럭

2017년은 꿈틀에게 새로 생긴 물품들을 소중하게 잘 써서 향후 10년 이상 거뜬하게 사용해야겠다는 기쁜 생각을 하게 된 해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꿈틀은 긴급지원119를 통해 소모임공간과 어린이독서교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새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좌식의자, 안내데스크 사무용 의자를 교체하고 도서관 내 북트럭을 마련하였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10년 전 쓰시던 스텐드형 에어컨을 기증받았는데, 공간에 비해 크기가 너무 크고 온도 조절도 안되고 자주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어 새로 구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새로운 에어컨을 장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소모임 활동과 어린이 독서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품들도 모두 사용 기간이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교체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변모되어 가는 도서관을 보면 뿌듯하고 기쁩니다. 어린이도서관 꿈틀의 경우, 긴급지원119를 통해 노후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시설을 새롭게 구입한터라 아무래도 도서관의 이미지가 보다 깨끗해지고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사실 소모임공간과 어린이독서교실로 이용되는 공간 자체가 좀 오래되고 환경적으로 쾌적해 보이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설 또한 낙후되다보니 전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런 시설 보강으로 이용하는 회원들이나 강사선생님,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긴급지원119를 통해 필요한 물품들을 교체했뿐만 아니라, 고맙게도 4개월여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꿈틀은 지역 시민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도서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 충당과 같은 재정적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뜻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경제적 안정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은 작은도서관의 인건비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에도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도서관 꿈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올해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여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어린이도서관 꿈틀은 15년 전 폐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도서관이다보니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공간이 협소한 편입니다. 이용에 따른 공간의 분할이 전혀 되지 않다보니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도서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18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정 협치 부문에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자치구의 경우는 구청 대강당에서 100인의 원탁회의를 열어 저희가 사업제안을 브리핑하고 100인이 토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총 35개 이상의 사업을 제안 발표하여 저희가 2위로 선정되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참 떨리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좋으니 많은 부분을 보상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큰 공사를 어떻게 제가 잘 할지도 매우 고민됩니다. 그래도 이에 힘을 얻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공간 극복과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계획과 실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가꾸어 나가는 마을 공동체의 소통과 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된 모습의 도서관이 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진짜 어려움도 많으시고 일을 하시다보면 본의 아니게 벌어진 일들로 상처받기도하고 힘드시기도 할 텐데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